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2)

— 1920년대 동요·동시를 중심으로

마성은*

국문초록

본고는 반쪽의 정전이 아닌 온전한 정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족아동문학이 시작된 1920년대 아동문학의 온전한 정전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위하여 1920년대 동요·동시에 관한 북측의 시각을 분석하고, 남측 『겨레아동문학선집』과 북측 『1920년대 아동문학집』의 1920년대 동요·동시 수록 양상을 비교하였다.

북측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들어와 민족문화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근대적인 성격이 뚜렷한 동요·동시·아동소설·동화와 같은 고유한 아동문학 형태를 갖춘 작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문학의 역사가 1920년 전후로 시작되어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파악하는데, 민족아동문학이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데 남북의 시각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20년대 동요·동시를 크게 “아이들의 시점에 서서 당대 생활에서 보고 느낀 체험을 동심에 맞게 형상”한 작품과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빚어진 현실의 모순과 무산소년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그리고 새 사회에 대한 동경과 이상을” 보여준 작품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레아동문학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 44편 가운데 25편이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실려 있다. 남측 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작품이 북측 선집에 실린 작품과 일치한다는 것은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모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1920년대 아동문학은 민족아동문학이 시작된 시기가

* 浙江师范大学 人文学院, 中国语言文学博士后流动站, wahae@hanmail.net

다. 우리 민족의 속담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1920년대 동요·동시 정전을 남북이 함께 모색하는 것은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큰 내딛음이 될 것이다.

■ 주제어 :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 민족아동문학, 선집, 1920년대, 동요, 동시

목차

- | | |
|----------------------------|----------------------------|
| 1. 들어가며 | 3. 남북의 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 |
| 2. 1920년대 동요·동시에 관한 복측의 시각 | 4. 나오며 |

1. 들어가며

본 연구자는 정전에 관한 반공주의 시대 아동문학의 논의, 그것을 비판한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의 논의가 모두 복측 아동문학을 제외한 반쪽의 논의였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전제는 남북 아동문학을 아우르는 관점임을 강조하며, 반쪽의 정전이 아닌 온전한 정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¹ 본고는 선행 연구로부터 이어지는 후속 연구로, 민족아동문학²이 시작된 1920년대 아동문학의 온전한 정전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지면의 제약에 따라 본고의 논의 대상은 1920년대 동요·동시로 한정하고, 1920년대 아동소설·동화는 후속 연구에서 논의할 것이다.

1 마성은,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 ‘한국 아동문학’과 ‘조선 아동문학’이라는 이분법은 분단시대의 유물이다. 통일시대 아동문학은 남북 아동문학을 아울러 ‘민족아동문학’으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통일아동문학’은 남북 아동문학이 마찬가지로 지향하는 것이지만, 아직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북 아동문학이 상호 존중과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한다. 분단 이전과 분단 이후의 현존하는 아동문학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으로는 ‘민족아동문학’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남측에는 아동문학 정전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온 사회가 혼연일체임을 강조하는 북측은 아동문학 정전에 관한 논의도 단일하다. 북측 아동문학은 크게 1992년 주체문학론 확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주체문학론 확립 뒤에 진행하고 있는 정전화 작업의 결과물을 통하여 현재 북측의 시각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동요·동시 정전화 작업의 결과물은 1993년에 출간된 『1920년대 아동문학집』³이다. 이 책은 앞부분에 고한승·남석중·윤량모·최서해·안준식·방정환·정열모·윤극영·류지영·리원수·박팔양·정지용·한정동·류도순·윤석중·박세영·김창신·권환·장정심·윤복진·김남주·송완순·리정구·고장환·긴내·마춘서·서덕출·류종원·리명식·장선명·홍란파·남궁랑·류재형·김병호·정상규 등 35명의 작가별로 작품을 묶었고, 앞부분에 묶지 않은 작가들(로해룡·강순도·김용희·초로·황석원·리정호·홍종인·최순애·표월강·럼근수·박길주·최점봉·정기주·리성홍·최영기·리경로·장서천·박범숙·김영일·김선익·류금산·꽃동산·성석훈·초동·해달별·박두언·주강산·정태이·성경린·정인섭·남궁인·한봉천·리고손·최룡봉·리용완·락랑·박기섭·김상근·김호영·전광수·영춘)의 작품을 1~2편씩 뒷부분에 실었다.⁴ 작품이 수록된 작가는 76명이며, 수록된 작품은 306편으로 상당한 분량이다.

이재철은 “이 선집이 예술적 성과나 그런 문학사적 시각보다 내용 위주나 이데올로기 위주로 편찬되었”⁵하면서도, “연대적 작품집 출간이란 점에서 남측 연구의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⁶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원종찬은 “박팔양·박세영·송완순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상’

3 류희정 편, 『1920년대 아동문학집』 1-현대조선문학선집 18,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4 작가명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김.

5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 박이정, 2007, 142면.

6 이재철, 위의 책, 148면.

을 수상한 윤복진보다도 윤석중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선집임에도 편집원칙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⁷고 지적하였다.

남측에는 많은 아동문학 ‘전집’이 있지만, 거의 분단 이후 남측 작가들의 작품만 엮었다. 일제 강점기 주요작 가운데 북측 작가들의 작품은 으레 배제되었다.⁸ 반공주의 시대 아동문학에는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은 민족아동문학사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정전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이 1920년대부터 한국전쟁(조국해방전쟁) 이전까지의 아동문학 정전화를 시도한 『겨레아동문학선집』⁹이다.

이오덕은 『겨레아동문학선집』을 통하여 “오랫동안 묻혀 버리고 잃어버렸던 수많은 우리들 귀중한 아동 문학의 유산을 이제야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 선집을 읽는 것은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평가하였다.¹⁰ 원종찬은 이 선집이 “한국 아동문학의 유산과 전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고 하였다.¹¹ 모두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이 민족아동문학사 바로 세우기에서 한몫하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은 남북 작가를 아울러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 정전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반공주의 시대 아동문학과 통일시대 아동문학 사이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7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 청동거울, 2012, 337면.

8 원종찬, 「아동문학의 정전 논의를 위하여」,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455~457면.

9 겨레아동문학연구회 편, 『겨레아동문학선집』 1~10, 보리, 1999.

10 이오덕, 「뿌리를 찾는 재미와 즐거움」, 겨레아동문학연구회 편, 『겨레아동문학선집』 10-귀뚜라미와 나와, 보리, 1999, 146~150면.

11 원종찬, 위의 글, 457면.

본고에서는 『1920년대 아동문학집』을 통하여 1920년대 동요·동시에 관한 북측의 시각을 분석하고, 『겨레아동문학선집』과 『1920년대 아동문학집』의 1920년대 동요·동시 수록 양상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민족아동문학이 시작된 1920년대 아동문학의 온전한 정전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1920년대 동요·동시에 관한 북측의 시각

북측 아동문학은 크게 주체문학론 확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 주체문학론 확립 뒤에 진행하고 있는 정전화 작업의 결과물을 통하여 현재 북측의 시각을 알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1920년대 동요·동시에 관한 현재 북측의 시각을 분석하기에 앞서, 과거 북측의 시각을 간략히 논하겠다.

민족아동문학의 개척자인 방정환이 갑오농민전쟁을 이끈 천도교(전쟁 당시에는 동학)의 핵심인사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에 시작된 민족아동문학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처음부터 강한 운동성을 띠고 있었다.¹² 민족종교 천도교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는 민족주의적 ‘동심’을 표방했고, 마찬가지로 민족종교 대종교에 기반을 둔 『신소년』과 이어서 등장한 『별나라』까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¹³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은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 이론을 그대로 따르

12 두전하, 「카프와 좌편 시기의 아동문학론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4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3.

13 원종찬, 「한국의 아동문학」, 원종찬·김영순·두전하·류티쌍, 『동아시아 아동문학사』, 청동거울, 2017, 20~27면.

는 경향을 보였다. 1929년 5월 전일본무산자예술연맹 기관지 『전기』에서 부간 『소년전기』를 내기 시작하고¹⁴, 1930년 전본남랑이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의 제문제』·『프롤레타리아동요강화』 등의 이론서를 출간한¹⁵ 무렵부터 조선에서도 소년문예운동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글들이 발표되었다. 이주홍은 전본남랑을 인용하며 평론을 발표하기도 하였다.¹⁶ 이어서 『별나라』·『신소년』·『어린이』 순서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¹⁷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의 핵심이었던 박세영·송영은 아동문학 창작 활동에도 힘을 쏟았지만, 아동문학 이론 논의에 개입하지는 않았다.¹⁸ 송완순·신고송·홍효민 등이 이론 논의를 이끌었는데, 당시 논의에서는 방정환과 『어린이』를 깎아내리는 등 종파주의적 결함이 그대로 나타났다.¹⁹

분단 이후 북측 아동문학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출신 작가들이 주도하였는데, 외국 추종과 종파주의도 이어졌다. 1956년에 출간된 해방전 아동 문학 작품선집 『별나라』²⁰와 1960년에 출간된 『현대 조선 문학 선집』 10(아동문학집)²¹에는 방정환의 작품이 배제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조선로동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당선전선동일군들에게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

14 두전하,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소명출판, 2019, 37~38면.

15 두전하, 위의 책, 51~52면.

16 두전하, 위의 책, 63~64면.

17 원종찬, 같은 곳.

18 두전하, 「이주홍과 장태이의 아동문학 비교 연구-카프와 좌연 시기를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제2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132면.

19 장정희, 「북한의 방정환 인식 변화 과정 연구」, 『동화와번역』 제31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6, 265~266면.

20 『별나라』-해방전 아동 문학 작품선집, 민주 청년사, 1956.

21 현대 조선 문학 선집 편찬 위원회 편, 『현대 조선 문학 선집』 10(아동문학집),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60.

립할데 대하여」²²라는 연설을 한다. 그는 “인민학교에 가보니 사진을 걸었는데 마야쑹쓰끼, 뿌쑤깁 등 전부 외국사람들뿐이고 조선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양해서야 어떻게 민족적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라며 외국 추종을 비판하였고,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민족적량심을 가진 진보적인사들”을 강조하며 종파주의를 비판하였다. 이 연설은 주체 확립에서 전환적 계기가 되었으며, 연설의 관점을 계승한 김정일은 주체문학론을 확립하였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내세울줄 모르는 사람은 레외없이 민족허무주의자이다. (...중략...)

일부 사람들속에서 우리 나라 민족문화예술유산을 보잘것 없는것으로 보고 과소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던것은 그들이 구라파중심주의사상에 빠져있었던것과도 많이 관련되어있었다. 구라파중심주의는 인류의 력사와 문화 발전에서 구라파가 주도적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저의것은 다 우월하다고 하고 남의것은 덮어놓고 멸등하다고 깎보는 비과학적이며 인종주의적인 부르쥬아사상관점이다.²³

위와 같은 관점에서 김정일은 “근대아동문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작가 방정환”²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일성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어린이의 날》이라는 아이들의 명절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름난 소년운동자였던 작가 방정환”²⁵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주

22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18: 1955.4-1956.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3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5면.

24 김정일, 위의 책, 84면.

25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367면.

체문학론에 기반을 둔 정전화 작업의 결과물이 『1920년대 아동문학집』이다.

1920년대 동요·동시에 관한 현재 복측의 시각은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 실린 리동수의 「근대아동문학의 역사를 더듬으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글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들어와 민족문화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근대적인 성격이 뚜렷한 동요, 동시, 아동소설, 동화와 같은 고유한 아동문학형태를 갖춘 작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며, “이런 의미에서 근대아동문학의 역사는 1920년을 전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그 발전의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²⁶ 민족아동문학이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데 남북의 시각이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선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은 동요·동시들이라며, 수록작을 크게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계열로 구분한다.

먼저 “아이들의 시점에 서서 당대 생활에서 보고 느낀 체험을 동심에 맞게 형상”²⁷한 작품으로 고한승의 「엄마 없는 작은 새」·「우는 갈매기」, 방정환의 「형제별」·「가을밤」, 윤극영의 「반달」·「설날」·「할미꽃」, 리원수의 「고향의 봄」·「외로운 밤」·「비누풍선」·「약 지어오는 밤」, 정지용의 「지는 해」·「할아버지」, 류지영의 「어머님 생각」, 한정동의 「두루미」·「바다」, 류도순의 「외로운 남매」, 윤석중의 「세계지도」·「오토기」·「조선물산장려가」·「떨어진 애기별」·「부엌데기 노래」·「휘파람」·「누나의 답장」·「언니 심부름」 등을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빚어진 현실의 모순

26 리동수, 「근대아동문학의 역사를 더듬으며」, 류희정 편, 위의 책, 14면.

27 리동수, 위의 글, 15면.

과 무산소년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그리고 새 사회에 대한 동경과 리상을²⁸ 보여준 작품으로 박세영의 「고향의 봄」·「가을 들」·「대장간」·「풀을 베다가」·「할아버지와 현시계」·「구름을 모으는 마음」·「손님의 말」, 권환의 「소년공의 노래」·「지도에 없는 아버지」·「왜 안무서워요」, 최서해의 「시골소년이 부른 노래」, 윤복진의 「팔려가는 우리 황소」·「후여 딱딱 참새야」·「동네의원」, 송완순의 「어머니 보고지고」, 리정구의 「오빠의 설음」, 장성명의 「고동소리」, 남궁랑의 「대장쟁이노래」·「어부의 아들」·「공장간 엄마」, 량우정의 「대목장 앞날밤」·「배풀」, 류재형의 「실제」, 장정심의 「소년들아」, 김용희의 「나비」 등을 예로 들었다.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를 계승하듯이²⁹, 주체문학론도 맑스-레닌주의 문학론을 계승한다.³⁰ 맑스-레닌주의 문학론에서 비판적 사실주의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발전한 단계로 규정하는 만큼, 북측에서는 당시 다른 계열의 동요·동시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계열의 동요·동시가 사상적 경향성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경지에서 형상되고 있다”³¹고 평가한다. “상대적으로 비교적”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계열이 아닌 동요·동시를 깎아 내리는 종파주의가 배격되었다. 이에 관하여 남측에서도 “이런 시각이라면 남북 동질성 회복에 진일보한 상태”³², “과거에는 방정환·이원수·윤석중·정지용 등을 배제했던 데에서 한걸음 나아간 인식”³³으로 평가하고

28 리동수, 위의 글, 23면.

29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90년 5월 30일)」,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92~109면.

30 김태경,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역사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8 ; 마성은, 「북측 동시와 2018년 4월전원회의」,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 17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9, 97-99면.

31 리동수, 같은 곳.

32 이재철, 위의 책, 148면.

있다.

남측에서 “동심주의 계열을 대표한 윤석중까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좀 뜻밖”이며, “선집을 통틀어 윤석중의 작품이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는 이를 어리둥절케 한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변화한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계열 작가들, 특히 “김일성상을 수상한 윤복진보다도 윤석중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편집 원칙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³⁴ 하지만 남측에서도 윤석중을 동심주의 계열 작가로만 파악했던 반공주의 시대 아동문학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가 일제 강점기에 발표한 프롤레타리아 동요에 주목하여 재평가하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³⁵

북측에서는 윤석중의 초기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사상성은 미약하다”면서도, “동심적발견과 기교는 있”다고 인정한다. 또한 여기에 “아이들의 인식능력과 순수한 동심을 계발하는” 의의를 부여한다. 특히 「조선물산 장려가」·「떨어진 애기별」·「부엌데기 노래」·「휘파람」·「누나의 답장」·「언니 심부름」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발표한 작품들을 보면 작가자신이 당대 참혹한 우리 나라 현실에 발을 붙이고 무산소년들의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었으며 정의로운 사회실천에 이바지하려는 어린이들을 긍정하고있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³⁶

남북 모두 윤석중에 관한 평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작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남측에서 반공주의, 북측에서 종파주의를 배격하자 평가에서 일치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33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 청동거울, 2012, 335면.

34 원종찬, 위의 책, 336~337면.

35 김제곤, 『윤석중 연구』, 청동거울, 2013 ; 두전하, 위의 책.

36 리동수, 위의 글, 21~22면.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는 비단 작가 한 사람의 평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전제조건을 일깨운다.

송두율은 ‘분단’을 하나의 ‘체계(체제)’ 또는 ‘구조’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 ‘체계이론적’ 인식 관점은 ‘이미 성립된 것’을 그대로 지키려는 자세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분단’을 보는 역사의식,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 주체의 목적 지향성을 스스로 안고 있다는 인식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하버마스가 ‘실천(Praxis)’을 근본적으로 ‘공학’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루만의 ‘체계이론’을 ‘사회이론’이 아니라 ‘사회공학’이라고 비판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단체계’나 ‘분단구조’보다 ‘분단시대’라는 용어가 주체적 인식론을 분명히 드러내 보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³⁷

사회공학에 지나지 않는 체계이론적 인식 관점이 아니라 역사의식에 뿌리내린 주체적 인식론을 통하여 볼 때, 분단시대는 행위 주체의 인식 전환과 그에 따른 실천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역사의 한 과정일 뿐이다. 역사가 길고 끊임없는 흐름인 만큼, 통일시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먼저 편견을 버려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시대 아동문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3. 남북의 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

『겨레아동문학선집』은 총 10권으로, 동요·동시는 9권과 10권에 실렸다. 이 가운데 1920년대 동요·동시는 모두 9권³⁸에 수록되었다. 『겨레아

37 송두율, 「『통일공학』이나 ‘실천’이냐, 『경제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2002, 99~103면.

『동문학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는 다음과 같다.

[표 1] 『겨레아동문학선집』에 수록된 1920년대 동요·동시

순번	작가명	작품명	발표지면
1	방정환	귀뚜라미 소리	『어린이』 1924.10.
2	방정환	늙은 잠자리	『어린이』 1924.12.
3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개벽』 1922.1.
4	김소월	개아미	『개벽』 1922.1.
5	김소월	부형새	『개벽』 1922.1.
6	주요한	빗소리	시집 『아름다운 새벽』, 1923.
7	김동환	북청 물장사	시집 『국경의 밤』, 1924.
8	윤극영	설날	『어린이』 1924.1.
9	윤극영	반달	『동아일보』, 1924.10.20.
10	윤극영	새떼	『어린이』 1927.10.
11	유지영	고드름	『어린이』 1924.2.
12	김기진	홀어미 까치	『어린이』 1924.3.
13	복동	단풍잎	『동아일보』, 1924.10.13.
14	최서해	시골 소년이 부른 노래	『동아일보』, 1925.3.25.
15	서덕출	봄 편지	『어린이』 1925.4.
16	최영애	꼬부랑 할머니	『어린이』 1925.4.
17	한정동	당옥이	『어린이』 1925.5.
18	천정철	가을 아침	『어린이』 1925.9.
19	천정철	시골길	『어린이』 1927.1.
20	최순애	오빠 생각	『어린이』 1925.11.
21	최순애	가을	『어린이』 1927.1.
22	정열모	버들눈*	『신소년』 1926.3.
23	김남주	어머님의 눈*	『신소년』 1926.5.

38 겨레아동문학연구회 편, 『겨레아동문학선집』 9-엄마야 누나야, 보리, 1999.

순번	작가명	작품명	발표지면
24	이원수	고향의 봄	『어린이』 1926.4.
25	정지용	서쪽 하늘	『학조』 1926.6.
26	정지용	감나무	『학조』 1926.6.
27	정지용	하늘 혼자 보고	『학조』 1926.6.
28	정지용	산에서 온 새	『어린이』 1926.11.
29	정지용	굴뚝새*	『신소년』 1926.12.
30	정지용	산 너머 저쪽	『신소년』 1927.5.
31	정지용	할아버지	『신소년』 1927.5.
32	정지용	해바라기 씨	『신소년』 1927.6.
33	정지용	말	『조선지광』 1927.7.
34	정지용	바람	『조선동요선집』, 1928.
35	윤복진	바닷가에서	『어린이』 1926.6.
36	윤복진	스무하루 밤	『중외일보』, 1929.5.22.
37	김종원	햇빛은 짹짹	『동아일보』, 1926.7.8.
38	김장연	달팽이	『어린이』 1927.1.
39	신고송	진달래	『어린이』 1927.4.
40	신고송	골목대장	『조선일보』, 1929.12.11.
41	윤석중	공장 언니의 추석	『조선일보』, 1928.9.29.
42	윤석중	‘집보는 아기’ 노래	『어린이』 1928.12.
43	박세영	강가에서*	『별나라』 1928.11.
44	이정구	가을 밤	『어린이』 1929.10.

- 굵은 글씨는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수록된 작품, *는 『1920년대 아동문학집』 수록 사실이 표기된 작품.

총 44편의 수록작을 보면 정지용의 작품(10편)이 가장 많고, 김소월·윤극영(3편), 방정환·천정철·최순애·윤복진·신고송·윤석중(2편), 주요한·김동환·유지영·김기진·복동·최서해·서덕출·최영애·한정동·정열모·김남주·이원수·김종원·김장연·박세영·이정구(1편) 순으로 나타난다. 정

지용은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11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그가 1920년대 동요·동시의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이라는 데 남북의 시각이 일치한다. 그 외에 윤석중(36편)·한정동(25편)·윤복진(20편)·이원수(12편)·박세영(11편)·이정구(11편)·정열모(10편)·김남주(7편)·방정환(6편)·윤극영(5편)·유지영(5편)·서덕출(4편)·최순애(2편)·최서해(1편)의 작품이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실려 있다. 이들은 남북이 함께 1920년대 동요·동시의 주요 작가들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김소월의 작품은 『겨레아동문학선집』에 3편이 수록되어 있으나,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1950년대부터 『김소월시선집』³⁹과 『김소월론』⁴⁰ 등이 출간되었다는 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김소월은 북측에서 줄곧 민족문학의 주요 작가로 평가되어 왔다.⁴¹ 주체문학론 확립 이후 출간된 『1920년대 시선』에도 그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통하여 볼 때⁴², 김소월은 확고한 정전 작가이다. 따라서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38년에 출간된 『조선아동문학집』에서부터 그의 작품을 아동문학 정전으로 편입시켜 온 역사를 떠올릴 때⁴³, 통일시대 아동문학은 그의 작품을 1920년대 동요·동시 정전에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정지용의 수록작은 『1920년대 아동문학집』 수록작과 거의 일치한다.

39 김소월, 『김소월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40 엄호석,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41 김우철, 「시인 김소월」, 『조선문학』 1955.12.; 김창석, 「김소월과 그의 시적 쓰짐-서거 25주년을 제하여」, 『문학신문』, 1959.12.25.; 박팔양, 「조국의 향토를 사랑한 시인 김소월-김소월 서거 30주년을 맞으며」, 『문학신문』, 1965.12.24.; 류병관, 「향토시인 김소월의 창작세계를 들여다보며」, 『조선문학』 2012.3.

42 류희정 편, 『1920년대 시선』 2-현대조선문학선집 14, 문예출판사, 1992.

43 원종찬, 「아동문학의 정전 논의를 위하여」,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454면.

정지용의 수록작은 「말」을 제외하면 모두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실려 있다.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는 「별똥」·「삼월 삼짇날」이 추가로 수록되었다. 「말」·「별똥」·「삼월 삼짇날」은 모두 1920년대 동요·동시 정전에 포함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들이며, 이에 관한 남북의 이견도 거의 없을 것이다. 남측에서는 “그의 동시가 1928년판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 4편(「삼월 삼짇 날」 「산에서 온 새」 「해바라기 씨」 「바람」), 1938년판 『조선아동문학집』에 3편(「말」 「지는 해」 「홍시」) 소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초창기 아동문학에 지울 수 없는 자취를 새겨 넣은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높이 평가한다.⁴⁴ 북측에서도 그의 「지는 해」·「할아버지」에 관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무산소년들의 비극적처지와 설움, 새 생활에 대한 리상과 동경을 동심에 맞게 노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⁴⁵

윤극영의 수록작 역시 「새똥」을 제외하면 모두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실려 있다.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는 「피꼬리」·「옥토끼」·「할미꽃」이 추가로 수록되었다. 양쪽 모두 실린 「설날」·「반달」은 동요 작곡가 윤극영이 남긴 대표작들의 가사라는 의미가 있다. 나머지 작품들이 1920년대 동요·동시 정전에 포함될 수준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의 작품들은 문학적 성취보다 음악적 성취가 돋보이며, 그 역시 작가보다 작곡가로 기억되어야 한다. 그는 ‘위만주국(伪满洲国, 1932.3.1.~1945.8.18.)’⁴⁶의 괴

44 원종찬, 「구인회 문인들의 아동문학」, 위의 책, 325면.

45 리동수, 위의 글, 20면.

46 ‘만주’라는 이름은 일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인 만큼 결코 정식 지명이 될 수 없고,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일제를 정당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해당 지방을 가리킬 때에는 동베이지구(东北地区) 혹은 동베이 3성(东北三省)이라 해야 하며, 중국인민항일전쟁 기간 동안 일제 강점구에 있었던 괴뢰정권을 가리킬 때에는 반드시 따옴표와 위(伪)자를 붙여 ‘위만주국(伪满洲国)’이나 ‘위만(伪满)’이라 해야 한다.

중국인민항일전쟁 기간의 아동문학은 두전하, 「한·중 동화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티프-『웅철이의 모험』과 『아리스 아가씨』를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제30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 연구소, 2015 ; 두전하, 「한국 『웅철이의 모험』과 중국 『앨리스 아가씨』의 반제(反帝) 특성 연구」,

뢰 외곽단체 ‘위만협화회(伪满协和会)’ 회장을 지낸 대표적 친일파 가운데 하나로, 민족아동문학사에 남을 정전 작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1920년대 동요의 대표작들 가운데 「설날」·「반달」을 빼놓을 수는 없다. 작가의 친일 행적은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설날」·「반달」이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동요라는 사실을 모른 채하는 것 역시 탈역사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윤복진은 북측에서 친근하게 ‘동요할아버지’⁴⁷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동요·동시인이다. 그런 그의 수록작 가운데 양쪽에서 겹치는 작품은 없다. 그의 수록작이 「바닷가에서」·「스무하루 밤」 2편에 불과한 데 반해,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는 「밤」·「국화」·「두만강을 건너며」·「동네의 원」·「서리」·「쫓겨난 부엌데기」·「바다」·「꽃대추」·「가을」·「이슬」·「고향 하늘」·「땀땀 땀사리-갓난이에게 주는 자장가」·「팔려가는 우리 황소」·「강남가는 제비야」·「그리운 제비」·「고향집」·「풍경」·「무명초」·「후여 딱딱 참새야」·「우리 만든 전화통은」 등 20편이 수록되었다. 북측에서는 「바닷가에서」의 미약한 사상성을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 여럿 실려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볼 때, 북측에서도 「바닷가에서」를 1920년대 동요·동시 정전에 포함시키는 데 선뜻 동의할 듯하다.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스무하루 밤」은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 실지 않은 것이 의외일 만큼, 북측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1920년대 아동문학집』 수록작들 가운데 상당수가 남측에서 1997년에 출간된 『꽃초롱 별초롱』⁴⁸에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 두전하, 「한·중 동화의 일제(日帝)에 대한 알레고리 연구-「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를 참조할 것.

47 김정일, 「《동요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조선문학』, 2002.7~8.

도 실려 있고, 2015년에 출간된 『서덕출·윤복진 동시선집』⁴⁹에는 『1920년대 아동문학집』 수록작들이 모두 실려 있다. 북측에서는 물론 남측에서도 윤복진의 일제 강점기 작품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⁵⁰, 그의 작품들이 1920년대 동요·동시 정전에 더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남북의 대화가 요구된다.

『겨레아동문학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 44편 가운데 25편이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실려 있다. 남측 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작품이 북측 선집에 실린 작품과 일치한다는 것은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모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4. 나가며

본고는 ‘분단체계(체제)’나 ‘분단구조’보다 ‘분단시대’라는 용어가 주체적 인식론을 분명히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송두율의 분석을 받아들여, ‘분단시대’·‘통일시대’라는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계에서 ‘통일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6.15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부터이다.⁵¹

아동문학에서도 2000년 9월에 “민족문학이란 관점에서 크게 식민지시

48 윤복진, 원종찬 편, 『꽃초롱 별초롱』, 창작과비평사, 1997.

49 서덕출·윤복진, 김용희 편, 『서덕출·윤복진 동시선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5.

50 류덕제,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7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의 작품세계」, 『아침햇살』, 1997년 겨울호 ; 이재복, 「놀이공간으로 열려 있는 정감 넘치는 동심의 세계 (윤복진의 동요세계)」, 『우리 동요 동시 이야기』, 우리교육, 2004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51 송두율, 「통일시대의 실험과 실천」, 『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2002, 93면.

대(일제 강점기), 분단시대, 통일시대라는 시대분류만은 가능할 것⁵²이라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시대분류에 동의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은 분단시대를 반공주의 시대와 민주화 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의 아동문학을 아울러 논할 때에는 분단시대 아동문학이라는 시대분류가 유효하지만, 남측 아동문학을 논할 때에는 반공주의 시대 아동문학과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의 차이를 지나칠 수 없다.

반공주의 시대 아동문학은 일제 강점기 주요작 가운데 북측 작가들의 작품을 으레 배제하며, 역사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은 민족아동문학사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정전 논의를 진행하였다.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은 남북 작가를 아울러 일제 강점기 아동문학 정전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반공주의 시대 아동문학과 통일시대 아동문학 사이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이 반공주의 시대 아동문학 계보·정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반쪽의 계보·정전이었을 뿐, 분단시대 이후 북측 작가·작품을 아우르는 온전한 계보·정전은 아니었다. 민주화 시대 아동문학의 민족아동문학사 바로 세우기 역시 분단의 장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본고는 반쪽의 정전이 아닌 온전한 정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족아동문학이 시작된 1920년대 아동문학의 온전한 정전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를 위하여 1920년대 동요·동시에 관한 북측의 시각을 분석하고, 『겨레아동문학선집』과 『1920년대 아동문학집』의 1920년대 동요·동시 수록 양상을 비교하였다.

52 이재철, 위의 책, 126면.

분단 이후 북측 아동문학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출신 작가들이 주도하였는데, 외국 추종파 종파주의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체문학론 확립 이후에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계열이 아닌 동요·동시를 깎아내리는 종파주의가 배격되었다. 특히 남북 모두 윤석중에 관한 평가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각기 반공주의·종파주의를 배격하자 평가에서 일치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는 비단 작가 한 사람의 평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먼저 편견을 버리는 것이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전제조건임을 일깨운다.

북측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들어와 민족문학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근대적인 성격이 뚜렷한 동요·동시·아동소설·동화와 같은 고유한 아동문학 형태를 갖춘 작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문학의 역사가 1920년 전후로 시작되어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파악하는데, 민족아동문학이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데 남북의 시각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20년대 동요·동시를 크게 “아이들의 시점에 서서 당대 생활에서 보고 느낀 체험을 동심에 맞게 형상”한 작품과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빚어진 현실의 모순과 무산소년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그리고 새 사회에 대한 동경과 리상을” 보여준 작품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레아동문학선집』에 실린 총 44편의 1920년대 동요·동시를 보면 정지용의 작품(10편)이 가장 많고, 김소월·윤극영(3편), 방정환·천정철·최순애·윤복진·신고송·윤석중(2편), 주요한·김동환·유지영·김기진·복동·최서해·서덕출·최영애·한정동·정열모·김남주·이원수·김종원·김장연·박세영·이정구(1편) 순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윤석

중(36편)·한정동(25편)·윤복진(20편)·이원수(12편)·박세영(11편)·이정구(11편)·정열모(10편)·정지용(10편)·김남주(7편)·방정환(6편)·윤극영(5편)·유지영(5편)·서덕출(4편)·최순애(2편)·최서해(1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들은 남북이 함께 1920년대 동요·동시의 주요 작가들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길고 끊임없는 흐름인 만큼, 통일시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먼저 편견을 버려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시대 아동문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겨레아동문학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 44편 가운데 25편이 『1920년대 아동문학집』에도 실려 있다. 남측 선집에 실린 1920년대 동요·동시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작품이 북측 선집에 실린 작품과 일치한다는 것은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모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1920년대 아동문학은 민족아동문학이 시작된 시기이다. 우리 민족의 속담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1920년대 동요·동시 정전을 남북이 함께 모색하는 것은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큰 내딛음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에 따라 논의 대상을 1920년대 동요·동시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아동소설·동화는 후속 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문학신문』, 『아침햇살』, 『조선문학』

겨레아동문학연구회 편, 『겨레아동문학선집』 9-엄마야 누나야, 보리, 1999.

_____, 『겨레아동문학선집』 10-귀뚜라미와 나와, 보리, 1999.

류희정 편, 『1920년대 아동문학집』 1-현대조선문학선집 18,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별나라』-해방전 아동 문학 작품선집, 민주 청년사, 1956.

현대 조선 문학 선집 편찬 위원회 편, 『현대 조선 문학 선집』 10(아동문학집),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60.

2. 논문

김태경,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역사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8.

두전하, 「이주홍과 장텐이의 아동문학 비교 연구-카프와 좌편 시기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2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3.

_____, 「카프와 좌편 시기의 아동문학론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제24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3.

_____, 「한·중 동화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티프-『웅철이의 모험』과 『아리스 아가씨』를 중심으로」, 『동화와번역』 제30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_____, 「한국 『웅철이의 모험』과 중국 『앨리스 아가씨』의 반제(反帝) 특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_____, 「한·중 동화의 일제(日帝)에 대한 알레고리 연구-「토끼와 원숭이」와 『금오리제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류덕제, 「윤복진의 아동문학과 월북」,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7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마성은,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_____, 「북측 동시와 2018년 4월전원회의」,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17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9.

장정희, 「북한의 방정환 인식 변화 과정 연구」, 『동화와번역』 제31집,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6.

3. 단행본

- 김소월, 『김소월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 김일성, 『김일성전집』 18: 1955.4-1956.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세기와 더불어』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주체철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제곤, 『윤석중 연구』, 청동거울, 2013.
- 두전하,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소명출판, 2019.
- 류희정 편, 『1920년대 시선』 2-현대조선문학선집 14, 문예출판사, 1992.
- 서덕출·윤복진, 김용희 편, 『서덕출·윤복진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 송두울, 『경계인의 사색』, 한겨레신문사, 2002.
- 엄호석,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 청동거울, 2012.
- _____,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 원종찬·김영순·두전하·류티쌍, 『동아시아 아동문학사』, 청동거울, 2017.
- 윤복진, 원종찬 편, 『꽃초롱 별초롱』, 창작과비평사, 1997.
- 이재복, 『우리 동요 동시 이야기』, 우리교육, 2004.
-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 박이정, 2007.
- _____,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Abstract

The Possibility of a Children's Literary Canon in Unification Era(2)

— Focused on Nursery Rhyme and Children's Verse in 1920s

Ma, Sungeun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to find an intact can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1920s when the national children's literature began, not a half-canon. Thus, analyzed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nursery rhyme and children's verse in the 1920s and compared the aspects of the nursery rhyme and children's verse in the 1920s in the both Korea's anthologies.

DPRK grasps that children's literature began to appear in the 1920s as the national literary movement became more active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view of the both Koreas was consistent that the national children's literature began in the 1920s. In DPRK, the nursery rhyme and children's verse from the 1920s is largely divided into line of critical realism and socialist realism.

More than half of the nursery rhyme and children's verse in the 1920s contained in South Korean anthology is also contained in North Korean anthology. This proves that it's possible to seek a children's literary canon in

unification era. Children's literature in the 1920s was the beginning of the national children's literature. Both Korea's quest for a canon of the nursery rhyme and children's verse in the 1920s together will be a big step to children's literature in unification era.

- Keywords : children's literature in unification era, canon, national children's literature, anthology, 1920s, nursery rhyme, children's verse
- 논문접수일: 2019. 4. 29.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